

[후원어린이 및 후원자 편지 모음]

### کم패션 가족 소식

구원받지 못한 자 -- "제가 목사님의 예배에 참석하고 얻은 가치에 대해 갚을 길이 없습니다. 설교는 매번 "더 좋았습니다". 한 목사님은 언젠가 죄인들이나 비기독교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이런 것들을 기록했습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비록 저는 회개해서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정도의 용기를 갖지는 못했지만, 이제부터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젠가, 너무 늦기 전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점점 더 용기를 주시고, 목사님의 설교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족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저는 비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네 명의 딸들에게 남자 형제가 생겼습니다 -- "저희는 김(Kim)을 위해 이 수표를 보내게 되어 행복합니다. 우리 네 딸들은 남자 형제를 갖게 되어 정말 신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저희 5 살 된 아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Kim)은 예수님에 대해 아나요?" 저는 이 후원이 김(Kim)보다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더 많은 일을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청소년 후원자 -- "우리 청년부에서부터 한국 소녀를 위한 이번 달 후원금으로 5 달러를 보냅니다. 그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줄여서 조이(Joy)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목사 -- "어제 몇 가지 서신을 정리하다가 목사님께 한 번도 편지를 쓰지 않았다는 것과 목사님의 사역이 이곳의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말씀드리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방문하신 것과 진행 과정 등, 이 모든 것이 확실히 주님께서 인도하신 일임을 느낍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많은 기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저는 누가 거듭난 루터교 신자인지 알게 되었고, 목사님이 공동체에 미친 영향과 회심한 영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삶에서 새롭게 깨어난 관심이 급증하여 여전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에버렛 목사님, 목사님의 사역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 영향은 아직 모두 알려지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사업가 -- "하나님은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러 이곳에 오셨을 때부터 저희 가정을 확실히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매일의 묵상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정말 큰 도움과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곧 짧은 여행을 떠날 텐데, 그 과정에서 복음에 관한 소책자를 나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마친 후) 저희는 멋진 여행을 했고, 그분을 증거하는 일은 신나고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거지 소년 - "저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는 저를 두고 떠나셨습니다. 그 후 제 형도 몰래 떠나 버렸습니다. 형을 찾아보기 시작했지만, 끝내 형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새생명 소년 보육원(New Life Boy's Home)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행복합니다. 제 노래는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 정윤부(Jung Yun Bu), 10 세

의사 -- "목사님의 친절한 편지와 목사님께서 우리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주신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라는 소책자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것을 매우 흥미롭게 읽었고, 언젠가 제가 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신: 목사님이 운영하는 한국 보육원을 위한 제 7 월 수표를 동봉합니다."

감사하는 어머니 -- "이 집회에 대한 제 의견은 제가 지금껏 들은 설교 중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딸이 회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13 세 소녀 -- "저는 노래 부르기, 영상, 설교 모든 것을 정말 즐겼어요. 저는 목사님이 다시 와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복음전도자로 계속 사역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바라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게요."

침례교도는 아니지만 -- "목사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침례교도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루터교도이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바는 목사님과 동일합니다. 앞으로 이 후원금 청구서를 어떻게 지불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들과 비교해서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모 없는 어린이 한 명을 지원하기 위해, 한 달에 5 달러씩 따로 떼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갓 회심한 군인 -- "지난주에 오하이오 강가에서 옛날식 캠프 집회가 있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3일에 목사님을 통해 기차에서 회심했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캠프 집회에서 기도의 제단 위에 그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이제 편지를 마치고, 소등 시간 전에 잠시 성경을 읽어야겠습니다."

김태희(Kim Tae Heh) 전도사: "사랑하는 스완슨 형제님, 목사님이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지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곳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부흥회를 하면서 이 지역의 마을과 교회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기독교부흥협회(Christian Revival Fellowship)에서 발행한 소책자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밤에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전합니다. 우리는 매우 바쁘게 일하고 있으며, 우리 사역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의 부흥사역을 위해 프로젝터가 꼭 필요합니다. (کم패션에서 보낸 등유 손전등은 이미 김 전도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제 소유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매달 급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과 이 멋진 사역에 목사님을 돕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교회가 처음 생긴 곳이라 모든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급여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살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제 아내가 두 달 전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이도 엄마도 건강합니다. 저는 제 아들의 이름을 폴(Paul)이라고 지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장로교 선교사: "저희는 아직도 작년에 여기서 있었던 목사님의 집회에 대한 최고의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다른 어떤 서양인들보다 목사님은 성경으로 가득 찬 메시지로 하나님을 위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부활절 동안 성령님이 하신 것으로 인해 우리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주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자에게로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 일하실 때, 우리는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족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 다른 선교사: "목사님의 사역은 한국의 부모 없는 어린이들에게 정말로 확실한 축복입니다. 그들의 복지를 위한 목사님의 지속적인 관심이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보이즈 보육원의 특별한 점(Boy's Home Unique): "이 보육원에 관해 목사님께 알려 드려야 할 몇 가지 흥미로운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의 거지 소년들을 계속해서 데려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 기관은 이 소년들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많은 소년들을 시설로 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거지 소년들은 정규 보육원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보이즈 보육원(The Boys' Home)은 그들이 머물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저희의 소년들을 모두 다른 보육원으로 옮기고 새로운 그룹으로 다시 시작하길 원했습니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지 소년들을 돕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우수한 소년들 약 30 명을 몇몇 더 나은 크리스천 보육원으로 옮기고, 새로 온 소년들이 보육원의 일상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강력한 핵심 그룹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년들은 또한 거리에서 새로운 소년들을 데려오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이즈 보육원(Boy's Home)은 일반 보육원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0 명이 새로운 보육원에서 잘 정착했고, 10 명의 새로운 소년들을 거리에서 데려왔습니다. 또 다른 20 명도 곧 올 예정입니다."

거지 소년의 간증: "저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찬송가를 자주 불러요. 새생명 보이즈 보육원(the New Life Boy's home)에서 지내고부터 저는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 보물이예요. 저는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어요. 비록 저는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었지만, 저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 서정운(Sur Jung Woon), 9 세

우리는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보이즈 보육원(Boy's Home) 앞에 오래되고 견고한 건물이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글쎄,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자신들을 쫓고 있다고 느꼈고, 그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 후, 그 집을 산 사람이 집을 허물고, 집 옆에 아주 좋은 우물을 남겼습니다. 김 씨(Mr. Kim)는 우물과 360 평의 땅을 75,000 원(100 달러가 약간 넘는 금액)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좋은 가격이며, 보육원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아멘, 악한 영들이 그때 저희를 도운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불행히도 저는 한국전쟁으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저는 어린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인 남자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새생명 보이즈 보육원(New Life Boy's Home)에 들어온 이후,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삶은 기쁩니다!" - 김희욱(Kim Hi Uk), 15 세